법화경 수지하는 사람도 공양해야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⑭ 부처님의 심부름

그때 세존이 게송을 읊어 이르셨다.

"부처의 도에 안주하여 자연스럽게 지혜 이루려면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사람을 공양할 것이며, 속히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고 싶거든, 이 가르침을 수지하며, 수지하는 사람에도 공양을 베풀라. 만약 능히 법화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의 사자로서 중생을 연민하게 여기는 자이니라. 법화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모든 사람은 청정한 땅 떠나와 중생 때문에 여기에 태어나느니, 이런 이는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기에 이 험악한 세상에 태어나 위없는 법을 설하느니라. 하늘의 꽃과 향과 보배와 의복, 보배의 무더기로 공양해야 할 것이니라. 내가 열반에 든 뒤 험악한 세상에서 이 법화의 가르침을 수지하는 자에게 합장하고 공경하기 세존을 공양하듯 하여 여러 맛난 음식과 갖가지 의복으로 공양 올리고 잠시라도 법문 듣기를 원할 것이니, 후세에서 이 묘법연화의 가르침을 능히 수지하는 사람은 내가 심부름 보내 여래의 일하게 하는 사람이니라."

'법사품'에 나오는 이 대목은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에게 공양하라는 권고하는 내용이며 그것이 부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대승경전을 대표하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는 불법을 믿는 신심을 지극히 하여 신앙으로 승화하도록 유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약왕보살본사품'에는 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팔을 태워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등신불(等身佛)'이란 말도 있듯이 몸을 태워 공양을 한다는 것은 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요 일종의 순교자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자타카〉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이야기에도 대비(大悲)를 실천하며 몸을 희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짐승을 살려주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법화경〉에서는 작은 일 하나가 성불의 인연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부처님 형상 비슷하게 그리면 이것이 장차 성불하게 될 인연이 된다고 하고 또 진흙을 빚어 장난감을 만들 때 그 모양이 부처님을 닮았으면 이것도 성불의 인연이 된다고 말했다.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불교의 신앙체계를 형성하는 전거(典據)가 되는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관음신앙이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별도로 유통시켜 〈관음경〉이라 하기도 하였다. 이 경에 관세음보살이 32응신을 하면서 중생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위신력이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중생에게 닥치는 불길한 재난의 요소들을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지극히 부르면 그 고난을 벗어나게 된다는 불가사의한 위력을 설하고 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4대보살이 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이다. 우리나라 예불문에도 이 4대보살의 명호가 들어 있다. 문수와 보현은 〈화엄경〉 주불인 비로자나의 좌우협시 보살로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행원을 상징한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로 모성(母性)을 갖춘 보살로 인식된다. 지장보살은 대비천제(大悲闡提)로 악도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불을 포기한 보살이다. 그래서 대비심이 지극하여 지옥 중생을 먼저 제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불을 미뤄버리므로 대비천제라 하는 것이다. 문수는 지혜의 눈이요, 보현은 행원의 발이며, 관음은 자비의 손이라 한다. 지장은 함께 울어주는 눈물과 같은 보살이다. 대승불교에 와서 특정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는 풍습이 생겼다. 아미타불 염불과 정토신앙은 내세의 극락왕생을 염원하고 관음신앙의 현세 이익을 얻고자 기도한다. 지장신앙은 돌아간 영가(靈駕)를 천도할 때 주로 이 기도를 한다. 그 외 〈화엄경〉을 의지해 생긴 신중신앙이 있고 문수보살의 주처로 알려진 오대산신앙 등이 있다. 이러한 신앙이 소승불교에서는 행해지지 않던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부파 내에서 대승 생겨났을 수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⑭ 율장의 재조명

삼장(三藏) 가운데 하나인 율장(律藏)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경장(經藏)이나 논장(論藏)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경장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모은 것이라면 율장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생활규범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경(經)과 율(律)은 새의 양 날개처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부파의 율장은 팔리율 1종, 한역 율장 5종, 티베트역 율장 1종으로 모두 7종이다. 이 가운데 부처님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전승되는 것은 남방 상좌부(上座部)의 팔리율이다. 어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통용되는 팔리율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통용되는 한역 율장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자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인도와 유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원형에 가깝게 전승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동북아시아는 인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파의 율이든 그대로 수용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같은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권이라도 티베트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양상은 다르다. 티베트에 전승되는 율장은 한역 율장 가운데 설일체유부의 신율(新律)인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의 완역이며, 그 범본(梵本)의 일부가 카슈미르 북부에서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8세기에 의정(義淨)이 한역한 율장과 티베트역 율장은 모두 근본설일체유부의 율장이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서는 설일체유부 계통의 율장이 많이 전해졌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법장부의 율장인 〈사분율(四分律)〉이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파의 율장은 소승 율장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승불교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율장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승불교가 재가자를 중심으로 한 불탑(佛塔) 신앙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부파 교단에 대승불교도가 공동으로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7세기 무렵에 인도에서 유학한 구법승인 현장(玄奘)과 의정은 이런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율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한 일부 불교학자들은 부파 내에서 대승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율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도불교사를 해명하기 위한 문헌 자료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율장을 성립 연대에 따라 배열하면 〈사분율〉과 〈오분율(五分律)〉, 팔리율과 〈십송율(十誦律)〉,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와 〈티베트율〉이 될 것이다. 이들 율장은 인도에서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300~400년까지 성립되었으며, 동북아시아로 전해져 5세기부터 8세기까지 한어 또는 티베트어로 번역되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성립된 율장에는 인도와 아시아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서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역 율장은 크게 지지계(止持戒)와 작지계(作持戒)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팔리율의 경분별(經分別)과 건도부(犍度部)에 해당한다. 전자는 계조(戒條)에 따라서 분별하고 주석을 붙인 것이며, 후자는 출가 교단의 생활규범을 모아 주석과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에서는 계경(戒經)과 결계(結戒), 범계(犯戒)의 종류와 출죄(出罪) 등을 다룬다. 후자에서는 수계(受戒)·포살(布薩)·안거(安居)·자자(自恣)와 그 밖의 의식주에 관한 스무 가지 사항을 다룬다. 이외에 후자에는 집법비니오백인(集法毘尼五百人)과 칠백집법비니(七百集法毘尼)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제1 결집과 제2 결집에 대한 기록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⑭ 곡류 음식문화

종교의식에 쓰였던 쌀과 보리

싯다르타 시대에 대중들이 주식으로 사용했던 곡류는 아마도 쌀과 보리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베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밀과 같은 곡류는 베다 시대의 종교의례나 서사시에서도 잘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당시에 가장 많이 대중들이 사용했던 곡류는 쌀과 보리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베다 의례를 치르기 위해 가장 빈번히 준비해야 했던 곡류 음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뿌로다샤(puroḍāśa)와 짜루(caru)라 부르는 음식이다. 뿌로다샤는 한마디로 말하면 쌀떡이고 짜루는 쌀이나 보리를 끓여서 만든 죽이다. 떡은 쌀을 물에 불려서 맷돌에 간 다음 쌀가루를 거북이 모양의 떡으로 만들어 쪄서 만든다. 짜루는 물에 버터나 우유를 함께 넣고 쌀이나 보리를 넣어 끓인 죽인데, 낱알을 으깨지 않고 끓인 것이다. 베다의 사제들은 자기 몫의 쌀떡과 죽 등을 따로 챙겨놓고 나머지를 제사에 참가한 제주에게 돌려주곤 했다. 이러한 형태의 떡이나 죽은 당시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먹었을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다. 물론 베다 의례는 곡류 음식을 만들어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동물을 바치거나 소마주를 바쳤던 의례보다 훨씬 규모와 의미가 작은 제사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신에게 바쳤던 음식이었으며 따라서 쌀과 보리가 일상생활의 음식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쌀과 보리는 각기 생장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쌀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보리를 수확해서 음식을 차렸고, 보리가 다 떨어질 때는 쌀을 수확해서 음식을 준비했다. 쌀과 보리는 그 품질에 따라 여러 종류가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기 베다 제사 문헌에는 고급품종인 샬리(śāli)와 일반품종인 브리히(vrīhi)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구분은 후대로 갈수록 더 세분화되는데, 불교의 자따까 문헌 등에서는 고급미에 해당하는 샬리 쌀을 깔라마 샬리, 락따 샬리, 마하샬리 등으로 세분하고 후대의 힌두문헌에서는 7종이나 10종 등으로 더 자세히 구분했다.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쌀이었다. 이름으로 보건데, 아마도 색깔과 크기가 일반미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유명한 쌀은 깔라마 쌀이었다. 깔라마 종은 아유르베다 문헌인 짜라까상히따(Caraka saṃhitā)에서 약성이 있는 음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대 인도의 음식학(pākakalā)을 보여주는 문헌에서도 이는 벵갈 유역에서 수확되는 고급 품종으로 손꼽는다. 고급미가 있었다면 평민이나 가난한 이들이 주로 먹었던 일반미도 있었을 것이다. 니바라(nīvara), 쁘리양구(priyāṅgu), 스야마까(śyāmāka) 등은 천민들이 먹던 거친 쌀을 가리켰다.

보리도 쌀만큼이나 고대 인도에서 주식으로 사용되었다. 아타르바 베다에는 '쌀과 보리를 하늘이 내린 두 자식'이라고 할 만큼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쌀처럼 보리도 떡을 빚어먹거나 죽 또는 경단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때로는 보리를 볶은 후 이를 분말처럼 갈아서 우유나 요구르트 꿀 또는 우유 등과 섞어서 먹기도 했으며, 소마 주스 등과 먹기도 했다. 쌀을 섭취할 때 우유나 기이(ghee, 인도식 정제버터)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밀은 훨씬 후대에 음식으로 등장한다. 본래 메르가르나 하랍빠, 모헨조다로 같은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에서 밀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대략 3500년 경 전후에 인도 땅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반(半)유목민이었던 인도-아리안인들에게 더 익숙했던 곡류는 특이하게도 쌀과 보리로 나타난다. 반면 밀은 이들의 종교생활에서나 일상생활의 초기 기록에서 쌀과 보리처럼 빈번히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아마도 '경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기원전 300여 년경 전후까지도 밀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인도인들의 주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불교가 일어난 훨씬 뒤에도 밀이 대중들에게 사용되기는 했어도 쌀이나 보리처럼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광목사
• 주 지 : 송언
•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예술인촌길 66-7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